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9월 23일(목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	
담당 부서	복지정책과	담당자	• 복지협력팀장 신유선 ☎440-2976 • 담당자 김효석 ☎440-2978			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**인천시가 전국 최초 시작한  
푸드마켓 배달서비스, 다양한 효과로 한몫**

- 상반기 만족도 조사결과 97%이상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-  
- 전년 대비 이용인원 25% 증가, 기부물품 모집 16% 증가 등 성과 -

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푸드마켓 물품 배달서비스 ‘명동 푸드마켓’ 사업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물품 배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올해 신규 사업인 ‘명동 푸드마켓’ 사업이 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상반기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.

‘명동 푸드마켓’은 푸드마켓 마다 배치된 푸드코디네이터가 배달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 상담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, 준비된 물품은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자 참여자들이 집 앞까지 배달해 드리는 사업이다.

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푸드마켓 이용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사업은 현재까지 거동불편자 등 물품 배달 서비

스 이용이 필요한 3천8백여 명에게 월 평균 1,500건씩 1만5백건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했다.

배달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. 푸드코디네이터 추가 배치를 통해 기존 종사자가 기부식품과 생필품 등의 모집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상반기 기부식품 등의 모집 액이 전년보다 16% 증가한 29억 상당이 모집됐다.

증가한 기부식품의 규모에 따라 이용인원도 증가해 전년보다 25% 증가된 8천8백 명이 이용하는 등 평동 푸드마켓 배달사업은 기부물품 지원 사업 활성화와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.

또한, 사업수행을 위해 인천시는 전담인력(14명), 노인일자리(30명)와 자활근로자(9명)를 연계·배치해 총 5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힘썼다.

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서비스 이용 편리성, 지원물품, 푸드코디네이터의 정보전달 및 설명, 배달 만족도의 4가지 조사항목에서 조사 참여자 1,084명 중 평균 97%이상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‘평동 푸드마켓’ 사업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물품 배달서비스의 기능 외에도 푸드마켓의 모집 액 증가와 이용자 확대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양한 효과로 푸드마켓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’이라며 ‘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

있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’ 고 밝혔다.

〈관련사진〉

